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8 국가직 7급 국어(나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대표강사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 문법,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 어휘완자,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나래국어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예상300제, 박문각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맛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밑줄 친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연계[연계] 교육
- ② 차례[차례] 지내기
- ③ 층의의[층이의] 자세
- ④ 논의[논의]에 따른 방안

★ 정답: ② -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 정답 해설:

제시된 선지들은 모두 표준 발음법 제5항과 관련되어 있다.
‘차례 지내기’에서 ‘차례’는 표준 발음법 제5항의 “예, 레” 이외의 ‘ㄷ’ [ㄷ]로도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다만 2. 규정에 따라 [차례]라고만 발음하여야 한다.

참고) 표준 발음법 제5항 (우월한 문법 규정 p. 57)

제5항 ‘ㄷ’ [ㄷ]과 ‘ㄷ’ [ㄷ]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ㄷ’은 [ㄷ]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ㄷ’은 [ㄷ]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오답 해설:

- ① ‘연계 교육’의 ‘연계’는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다만 2. 규정에 따라 [연계/연계] 모두 표준 발음이다.
- ③ ‘층의의 자세’에서 ‘층의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4에 따라 [층의의/층이의/층이에/층이에]가 모두 표준 발음이다.
- ④ ‘논의에 따른 방안’에서 ‘논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4에 따라 [논의/논의]가 모두 표준 발음이다.

문 2.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의 형식에 상응하는 기표(記標)와 기호의 의미에 상응하는 기의(記意)의 기호적 조합이라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필기도구’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기표는 한국어에서 ‘연필’이다. 그런데 ‘연필’의 기의에 대응되는 영어 기표는 ‘pencil’이다. 각기 다른 기표가 동일한 기의를 표현한 것이다. 소쉬르는 이처럼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두고 기호적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자의성은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code)에 따라 조율된다고 보았다.

- ① 표준어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서 기호의 자의성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 성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겠군.
- ③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 ④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추론 부정발문

★ 정답 해설:

‘연필’과 ‘pencil’의 예를 통해 각기 다른 기표가 동일한 기의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쉬르는 이러한 관계를 ‘자의적’이라 하였으며 자의성은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에 따라 조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에 대한 기표들이 유사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부추’에 해당하는 식물의 의미가 기의이고, 이것에 대한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기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현상을 통해 자의성을 엿볼 수 있다.
- ②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두고 기호적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하며, 이 자의성은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에 따라 조율된다. 그러므로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약호)가 널리 쓰이려면 사회 성원들의 공통된 합의 즉,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다.
- ③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를 서로 공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 역시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문 3.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 할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 ① 의인화 기법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고 있다.
- ②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 ③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④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과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제목은 ‘슬픔’을 화자로, ‘기쁨’을 청자로 설정하는 의인화가 활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라는 표현에서도 ‘슬픔’을 의인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작품해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의지적, 박애적, 비관적
- 특징: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
 ‘슬픔’과 ‘기쁨’에 일상적 의미에서 벗어난 새로운 의미를 부여
 ‘-겠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적인 자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 주제: 소외된 자들의 슬픔에 대한 관심과 슬픔의 힘에 대한 각성 촉구
- 구성: 176행 ‘너’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시키려는 ‘나’
 713행 ‘너’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시키려는 ‘나’
 1419행 ‘너’에게 슬픔의 힘과 기다림을 주려는 ‘나’
- 해제: 이 시는 ‘슬픔’의 소중함과 힘을 ‘기쁨’과 관련지어 노래한 것이다. 이 시에서 ‘나’와 ‘너’는 각기 제목상 ‘슬픔’과 ‘기쁨’이지만, 작품의 내용과 표현상으로는 ‘슬픔’의 세계를 대변하는 자와 ‘기쁨’의 세계를 대변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나’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그들을 위한 눈물도 흘리지 않는 존재인 ‘너’를 대하는 태도는 소외된 자들의 슬픔에 대한 관심과 그 슬픔이 지닌 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떨고 있는 할머니’,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 ‘추위에 떠는 사람들’로 묘사된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 ③ 유사한 종결어 ‘-겠다.’의 반복을 통해 연대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④ ‘나는 이제 너에게도 ~겠다.’는 표현을 보면, 상대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4.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행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키즈 존(No Kids Zone)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 홍○○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노키즈 존이 정확히 뭔가요?
 홍 교수: 사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특정 연령 이하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진행자: 공공 목적을 가진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상업 시설에서도 그런가요?
 홍 교수: 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도 해당됩니다.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나 불만으로 인해 전체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진행자: 아, 어린이 동반 손님을 만나 보면 오히려 다른 손님들을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잖아?
 홍 교수: 네. 아무래도 경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겠죠.
 진행자: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언뜻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과 같이 또 다른 차별의 예를 떠올리게 하네요.
 홍 교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시장주의 위주로 성장해 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같은 부분은 깊이 생각해 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물론 특정 집단의 차별에 대해 일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던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며 다음 인터뷰를 기약한다.
- ② 예상되는 반론 가능성을 차단하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다.
- ③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④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 정답: ③ - 독해(화법) - 말하기 방식

★ 정답 해설:

진행자는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의 예를 들어, 노키즈 존이 또 다른 차별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대화의 상대방인 홍 교수가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이라며 ‘한국 사회가’ ‘아닌가 합니다’라는 추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진행자는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기보다는, ‘공공 목적을 가진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업 시설에서도 그런가요?’라며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음 인터뷰를 기약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 ② 진행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홍 교수의 발언을 정리하며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행자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관철한 부분은 없었다.
- ④ 진행자는 질문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 5.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
- ②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 ③ 우리 팀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 왔다.
- ④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문장

★ 정답 해설:
 '우리 팀에서는'이라는 주어와 '모든 홍보 방안을'이라는 목적어, '고려해 왔다'라는 서술어가 모두 자연스럽게 호응하고 있다.
 '가능한'은 용언의 관형형이므로 그 뒤에 명사 '한'이 와서 '가능한 조건하에 서'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 뒤에는 부사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하는데 이러한 문장 호응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오답 해설:
 ① ⇨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한자 사용을 모두 없애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문제의 의도는 문장 성분의 호응을 묻는 것이니 내용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도록 한다.)
 주어인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과 서술어 '의도였다'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로 수정하며, '모든 한자 사용'은 '모든'이 수식하는 부분이 '한자'인지 '사용'인지 모호하므로 중의성을 해소하여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한자 사용을 모두 없애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접속 조사 '과'를 중심으로 '식단 마련'이라는 명사형의 구성 뒤에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다'라는 서술형의 구성이 이어져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이다. 따라서 '식단을 마련하고 ~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다' 식의 서술형 구성으로 앞 절과 뒤 절이 호응이 되도록 한다.
 ④ ⇨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절의 서술어 '살펴보다'의 주어는 생략되었으나 이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 절의 서술어를 '일어나고 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로 수정하여 앞 절의 내용과 호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 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그 길을 걸어 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 ② 대책 없이 쓸 데 없는 일반 콜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 ③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다.
- ④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바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 한다.

★ 정답: ④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바'는 어미 '-나바'와 의존 명사 '바'를 구분해야 한다.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나바'는 붙여 쓰고 '방법' 또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나 일'을 나타내는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제시된 문장은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기 위해 쓰인 연결 어미 '-나바'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옳다. '찾아야 한다'는 '찾다' 뒤에 '-어야 하다' 구성으로 쓰이는 보조 용언 '하다'가 이어지는 경우이므로 '찾아야 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참고 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 (우월한 문법 규정 p. 171)

바	의존 명사	평소에 느낀 <u>바</u> 를 말해라. (수식 의미 자체) 나아갈 <u>바</u> 를 밝히다. (방법, 방도)
	어미 일부	서류를 검토한 <u>바</u>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더니, ~나데, ~니)

★ 오답 해설:
 ① '걸어오다'는 '걷다'와 '오다'가 합쳐진 통사적 합성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동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데'는 어미 '-나데'와 의존 명사 '데'를 구분하여야 한다. 어미로 치환했을 때 의미가 통하면 어미, 의존 명사로 치환하여 의미가 통하면 의존 명사이다. 또한, 어미일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쓰고,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 '데' 뒤에 격 조사를 붙여보는 것이다. '데'가 의존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뒤에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①의 '참여하는데'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므로 '이 연구를 참여하는 것에'로 치환할 수 있고 '데' 뒤에 격 조사를 붙여 '참여하는 데에'로도 쓸 수 있으므로 '참여하는 데'라고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참고 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 (우월한 문법 규정 p. 171)

데	의존 명사	책을 다 읽는 <u>데</u> 삼 일이 걸렸다. (장소, 경우)
	어미 일부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 <u>데</u> . (종결)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연결)
지	의존 명사	그를 만난 <u>지</u> 도 꽤 오래되었다. (경과한 시간)
	어미 일부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안녕하 <u>신지</u> . (불확실)
바	의존 명사	평소에 느낀 <u>바</u> 를 말해라. (수식 의미 자체) 나아갈 <u>바</u> 를 밝히다. (방법, 방도)
	어미 일부	서류를 검토한 <u>바</u>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더니, ~나데, ~니)
걸 거	의존 명사	후회할 <u>걸</u> (= ~르 것을) 왜 그랬어. 난리가났을 <u>걸</u> (= 것이)다.
	어미 일부	내가 먼저 사과할 <u>걸</u> . (아쉬움)
텐데	의존 명사	날이 밝아야 할 <u>텐데</u> . (= ~르 터인데)
	어미 일부	은혜를 갚을 <u>텐다</u> . (= ~르 터이다)
망정	의존 명사	미리 알았기에 <u>망정</u> 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 (공정)
	어미 일부	생활이 <u>어려울망정</u> (= ~할지라도) 자존심은 잃지 마라. (부정)

② '쓸 데 없는'은 '쓸데없다'의 활용형으로 '쓸데없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쓸데없는'으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콜라 하니'는 '콜라하다'라는 합성동사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고르다'와 '하다' 두 동작이 연결되어 분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분용언과 분용언의 이어지므로 '콜라 하니'처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③ '지'는 어미 '-나지'와 의존 명사 '지'로 구분해야 한다. '지'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어미 '-나지'를 활용하여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므로 앞말에 붙여 '하는지'로 써야 한다.
 '알아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동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알아보다'의 활용형 역시 '알아볼'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이 옳다.

문 10. ㉠ ~ ㉢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사는 집 이름을 사우재(四友齋)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벗하는 이가 셋이고 거기에 또 내가 끼니, 합하여 넷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 벗은 오늘날 생존해 있는 선비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옛 선비들이다. 나는 원래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데다가 또 ㉠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꾸짖고 때를 지어 배척하므로, ㉡ 집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밖에 나가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탄식했다.

“벗은 오륜(五倫)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데 나만 홀로 벗이 없으니 어찌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생각해 보았다. ㉢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사귀려 들지 않으니 어디서 벗을 찾을 것인가. 할 수 없이 ㉣ 옛 사람들 중에서 사귀어 만한 이를 가려내서 벗으로 삼으리라고 마음먹었다.

- ① ㉠: 傍若無人
- ② ㉡: 左顧右盼
- ③ ㉢: 不恥下問
- ④ ㉣: 後生可畏

★ 정답: ① - 어휘 - 한자성어

★ 정답 해설:

傍若無人(방약무인)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는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이다.

傍 곁 방 / 若 같을 약 / 無 없을 무 / 人 사람 인

★ 오답 해설:

② 左顧右盼(좌고우편)은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짚는으로 자세히 살핀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일른 결정을 짓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는 ㉡의 ‘찾아오는 이가 없고 찾아갈 만한 곳이 없는’ 상황과는 맞지 않다.

左 왼 좌 / 顧 돌아볼 고 / 右 오른쪽 우 / 盼 걸눈질할 면

③ 不恥下問(불치하문)은 지위, 학식, 나이 따위가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사람들이 나를 사귀려 들지 않는’ ㉣의 상황과는 관련성이 없다.

不 아닐 불 / 恥 부끄러울 치 / 下 아래 하 / 問 물을 문

④ 後生可畏(후생가외)는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려운다는 말이다. 이는 ‘옛 사람들 중에서 사귀어 만한 이를 벗으로 삼으려는’ ㉢의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가 아니다.

後 뒤 후 / 生 날 생 / 可 옳을 가 / 畏 두려워할 외

문 11.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표 용의자의 용모를 파악하기 위해 눈, 코, 입 등 얼굴 각 부분의 인상을 조립하면 하나의 얼굴 사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몽타주 사진이라고 부른다. 몽타주는 ‘조립’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므로 몽타주 사진을 ‘조립된 사진’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다. 이처럼 몽타주에서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상을 창조한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몽타주의 효과를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위해 사용해 왔다. 몽타주 효과는 특히 영화에서 자주 응용되며, 몽타주에 관한 이론은 영화 이론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 이유는 영화 자체가 몽타주에 의해 성립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따로 찍은 장면을 이어 붙이는 조립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슬픈 장면 뒤에 등장하는 무표정한 얼굴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라 해도 앞에 어떤 장면을 배치하는가에 따라 그 얼굴이 드러내는 감정은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몽타주를 통해 영화 특유의 시간 감각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침묵이 유난히 더 길게 느껴진다면, 이는 영화의 장면 조립을 통해 창조된 새로운 시간 감각 때문이다. 영화 이론가들은 이러한 영화 특유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 즉 조립에 의해 탄생하는 영화의 세계에 관한 이론을 몽타주 이론이라고 부른다.

- ① 몽타주 효과는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을 의미한다.
- ② 동일한 장면이라 해도 그 배치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③ 몽타주 이론은 이어 붙인 장면들을 통해 창조되는 영화의 시간 감각을 다룬다.
- ④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여 영상미를 창출함으로써 몽타주의 효과가 생겨난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및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몽타주 효과란 단절된 여러 부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인상이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는 것은 몽타주 효과와 관련이 없다.

★ 오답 해설:

① ‘몽타주에서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상을 창조한다.’를 통하여 몽타주 효과가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라 해도 ~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를 통해, 동일한 장면이라 해도 장면의 배치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영화 이론가들은 ‘조립에 의해 탄생하는 영화의 세계에 관한 이론을 몽타주 이론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따로 찍은 장면들을 이어 붙이는 조립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영화의 시간 감각은 이러한 과정과 장면들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탄생한다고 하였으니 몽타주 이론이 이러한 영화의 시간 감각을 다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문 12. 다음은 선조 28년 7월에 사헌부에서 올린 보고문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헌부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여러 대 태평을 누리는 동안 문물은 융성하고 교화의 도구는 남김없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선비들은 예법으로 자신을 단속했고, 백성들은 충과 효에 스스로 힘썼습니다. 관혼상제의 법도는 옛날보다 못하지 않았고, 임금을 버리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은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효도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윤리에 죄를 얻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난리[임진왜란]를 겪은 뒤로는 금방(禁防)이 크게 무너져 불온한 마음을 품는가 하면, 법도에 벗어나는 말을 외치기도 합니다. 오직 제 몸의 우환만 알고, 부모의 기른 은혜를 까맣게 잊은 나머지 저 들관과 진필에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버려져 있는가 하면, 상복을 입은 자가 고깃국을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니다. 식견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 무지한 이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인데, 그 아버지를 이처럼 박대한다면 의리를 따라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 ① 효를 실천하지 않는 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리 없다.
- ②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장례 방식이 임진왜란 이후 생겨났다.
- ③ 전란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법도가 무시되고 있다.
- ④ 무지한 이들은 식견 있는 이들에 비해 윤리적 과오에 더 취약하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및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둘째 문단에 따르면, 난리[임진왜란] 이후 '오직 제 몸의 우환만 아는 이들'이 부모의 기른 은혜는 잊고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버린' 것이다. 이는 장례 방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장례 자체를 치르지 않은 것이다.

★ 오답 해설:
 ① 둘째 문단의 '그 아버지를 이처럼 박대한다면 의리를 따라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첫째 문단에서는 법도가 잘 지켜지던 시절을 이야기하였다. 둘째 문단의 '난리[임진왜란]를 겪은 뒤로는 ~ 외치기도 합니다.'를 통해 전란 이후에 중요한 법도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둘째 문단의 '식견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 무지한 이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를 통해, 무지한 이들이 윤리적 과오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약용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의 절용(節用), 즉 아껴 쓰기를 강조했다. 다산이 말한 절용은 듣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자기 돈은 절용하기 쉽지만 정부 돈은 함부로 쓰기 십상이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절용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내가 오랫동안 귀양 살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재산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글자 두 자를 유산으로 남겨 준다. 하나는 근(勤)이요, 하나는 검(儉)이다. 너희가 근검 두 글자를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논 100마지기 200마지기보다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고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다산은 백성을 통치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한 것이다. 다산이 말한 청심(淸心)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직자의 기본이다.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산은 청렴이 천하의 큰 장사라 말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청렴한 사람이 진짜 욕심쟁이라고 했다.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다산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이유를 지혜가 모자란 데서 찾았다. 다산의 청렴 사상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廉者安廉 知者利廉)는 말로 요약된다. 공자는 목표가 인(仁)인 반면 다산은 목표가 청렴이었다. 인은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니 한 단계 낮추어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

- ① 공직자들은 금품과 선물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 받아야 한다.
- ② 관리들이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③ 자손에게 물질적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함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및 추론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듯, 지혜로운 관리일수록 청렴함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를 보다 잘 이뤄낼 수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해설:
 ①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를 통해, 공직자들은 사사로운 금품을 아예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② '공자는 목표가 인(仁)인 반면 ~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문장 통해 인(仁)이라는 과도하게 높은 성현의 경지라고 보고, 관리들에게 한 단계 아래의 청렴을 지키라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리들의 청렴을 통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에서 볼 수 있듯 정약용은 자손에게 재산이 아닌 '근'과 '검'을 실천하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자손에게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다고 한 적은 없다.

문 14.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껏 常 평홀 平 통홀 通 보뵈 寶字
구멍은 네모지고 四面이 둥그러서 썩덕굴 구으러 간 곳마다 반기는고나
엇더타 죠고만 金조각을 두창이 닷토거니 나눈 아니 조해라

- ① 조선 후기의 참여한 신분 갈등이 제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제재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제재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시적 화자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다.
- ④ 화자의 심화된 내적 갈등을 보여 주기 위해 대립적 성격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제시된 시조의 제재는 엽진인 '상평통보(常平通寶)'이다. 화자는 상평통보(엽진)가 둥글기 때문에 굴러다니면 간 곳마다 사람들이 이를 반긴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차지하기 위해 '두창(두통)'이 생기도록 다투어, 화자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제재인 '상평통보'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대조되고 있다.

[작품해설]

- 갈래: 고시조, 사실시조, 해학가, 풍자가
- 주제: 황금만능주의를 비웃음(18세기)
- 구성: (초장) 상평통보만 있으면 반상(班常)의 구별 없이 뿔뿔하고 평등하게 널리 통용할 수 있는 보배라고 하였다.
(중장) 엽진의 실제 모양이 가운데는 구멍이 네모지고 네 면이 둥글다고 하였는데, 상평통보가 둥글기 때문에 아무 데나 백대구루루 굴러다니면서 누구나 반기는 대상이 된다고 노래하였다.
(종장)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이 첫조각을 두고 사람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다투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반어법으로 일부러 능청을 부리고 있다.
- 해제: 이 시조는 엽진(돈)의 생김새와 유통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음을 비웃으며 자신은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돈의 기능뿐만 아니라 돈의 위력과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오답 해설:

- ① 초장에서 제재인 '상평통보'에 대하여 뿔뿔하고 평등하게 통용할 수 있는 보배라 하였다. 참여한 신분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 ② 엽진이 굴러다니는 것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활유법에 해당할 뿐, 정서나 생각을 드러낸 의인화는 아니다.
- ④ 대립적 성격의 소재가 제시되지 않았고 '상평통보'라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화자에게는 심화된 내적 갈등이 없다.

문 15. ㉠ ~ ㉢ 중 한자의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프레젠테이션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 陳述하는 말하기를 가리킨다. 프레젠테이션은 조사한 내용을 ㉡ 設明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하는 등 정보 공유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 使用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핵심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 制視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 어휘 - 한자어

★ 정답 해설:
문맥상 ㉠은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의 陳述(진술)이 적절하고 ㉡은 '물건을 씌움'의 使用(사용)이 적절하다.
陳 베풀 진 / 述 펼 설
使 하여금 사, 부릴 사 / 用 쓸 용

★ 오답 해설:

- ① 문맥상 ㉡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의 說明(설명)이 적절하다.
說 말씀 설 / 明 밝을 명
設 베풀 설
- ③ 문맥상 ㉣은 '어떠한 뜻을 글이나 말로 드러내어 보이거나 가리킴'의 提示(제시)가 적절하다.
提 끌 제 / 示 보일 시
制 절제할 제, 지을 제 / 視 볼 시

문 16. 밑줄 친 부분을 고유어로 바꿀 때 적절한 것은?

- 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바라는
- ② 우리는 연 3%의 연체 이자를 납부합니다. → 에누리
- ③ 부서의 현재 상황을 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헤아려
- ④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 주시기

★ 정답: ① - 어휘 - 고유어 + 이문 문법 - 의미론 - 유의 관계

★ 정답 해설:
'소기(所期)'는 주로 '소기의' 꼴로 쓰여 '기대할 바'를 의미한다. 이때 '소기'의 '바'를 '바라'로 바꾸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하여도 '소기'가 갖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유사한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이자(利子)'는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의미한다. 반면, '에누리'는 '물건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 또는 그 물건값, 값을 깎는 일, 실제보다 더 보태거나 깎아서 말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한자어 '이자(利子)'는 '갈미'와 같은 고유어로 순화하여 쓸 수 있다.
- ③ '상신(上申)하다'는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하다'라는 의미이다. '짐작하여 가능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헤아리다'는 '상신하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부서의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양지(諒知)하다'는 '살피어 알다'라는 의미인데 이를 '알려 주다'와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으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문 17.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일이지는 하지만, 저 혹독한 6·25의 경험 속의 공포의 전깃불(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 쓴 일이 있다), 그 비정한 전깃불빛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변신이나 사라짐이 가능했을까. 앞에 선 사람의 정체를 감춘 채 전깃불은 일방적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고 운명을 판가름할 대답을 강요한다. 그 앞에선 물론 어떤 변신도 사라짐도 불가능하다. 대답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대답이 빗나간 편을 잘못 맞았을 때 그 당장에 제 목숨이 달아난다. 불빛 뒤의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를 알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을 기준하여 안전한 대답을 선택할 수가 없다. 길은 다만 한 가지. 그 대답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근거로 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제 목숨을 건 자기 진실의 드러냄인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 이청준, 「전깃불 앞의 방백」 -

(나) 한때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은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 이청준, 「소문의 벽」 -

- ① (나)와 달리 (가)는,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를 적용하여 사태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을 낱말이 진술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상호적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상황의 공포를 다름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고립된 채 두려움에 떠는 인물의 행동을 극화함으로써 공통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북한군인지 혹은 남한군인지 모를 사람들이 찾아와, 전깃불을 눈에 비추고 누구의 편인지 물어보는 것에 대한 경험으로 생긴 공포를 말하고 있다.
 (나)는 소설가 '나'가 자기 진술인 문학 행위의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마치 전깃불을 비추던 군인의 질문을 받을 때처럼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상호적 소통이 아닌, 일방적 소통으로 인한 공포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전쟁이라는 경험을 통해 발생한 상징적 장치인 공포(전깃불)를 적용하여 사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이념적 대립(6·25 전쟁)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한 공포는 (나)보다 (가)에서 더 상세히 그려져 있다. (나)는 (가)에 제시된 경험 이후로도 이어지는 고통을 창작 과정에서 겪는 공포에 연결하여 이야기하였다.
 ④ 인물의 행동을 극화하려면 대화나 행동의 장면적 제시가 필요하다. (가)와 (나)는 대화나 행동 묘사보다 단순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문 18.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특정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 속에서 어떻게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 그 의미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일까? 즉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와 다른 모든 단어들이 구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당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마슬렌-윌슨(Marslen-Wilson)은 어떤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비로소 어떤 단어가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slander'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slant'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숫자 조합 자물쇠의 회전판을 올바른 순서로 회전시킬 때, 모든 숫자를 끝까지 회전시키지 않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소리 연속체를 요구하는 신경 회로들은 진행 중인(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소리의 연속체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slan/은 'slander'와 'slant'에 관련된 신경 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다.

- ①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 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된다.
- ② 'slander'와 'slant'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 ③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하여 발화하는 과정은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및 추론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예시 분석에서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통해 청각 체계를 통해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하며,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② '그는 실험을 통해 ~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문장을 통해 'slander'와 'slant'는 동일한 부분인 'slan'까지는 구별이 불가능하며, 다른 한 단어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지점인 /d/ 또는 /t/를 들었을 때 비로소 다른 한 단어와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발화의 과정이 아니라,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단어)를 들으며 다른 단어들과 구별해 내는 과정이다.
 ④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slan/'의 예시를 보면, 청각 체계를 통해 들어온 소리가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한 뒤, 유사한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으며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다.

문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千世 우회 미리 定訖산 漢水 北에 ㉠累仁開國訖사 卜年이 ㉡업스시니 聖神이 니스샤도 ㉢敬天勤民訖사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뉘굽하 ㉡아르쇼셔 洛水에 山行 가 이셔 하나벨 미드니잇가

- ① ㉠에서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연결어미 ‘-야’가 결합된 형태로, 현대국어의 ‘-시어’에 대응된다.
- ② ㉡에서 ‘-사’는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
- ③ ㉢에서 ‘-하’는 높임을 받는 대상에 쓰는 호격 조사로, 현대국어의 ‘-이시어’에 대응된다.
- ④ ㉢에서 ‘-쇼셔’는 청자를 높여 주며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된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중세국어
★ 정답 해설:
 ‘㉢敬天勤民訖사사’는 현대어로 ‘경천근민(하느님을 받들고 백성을 통치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함)하여야’로 해석된다. 따라서 ‘-△’는 따라서 현대국어의 ‘-야’와 대응된다.
 ‘-△’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어)야’에서 ‘어(어)’가 탈락된 풀인 오늘날의 ‘-야’를 의미하는 옛말의 어미이다.
 조사 ‘△’는 받침 없는 체언류나 조사, 어미 뒤에 붙어 오늘날의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야’를 의미한다.
★ 오답 해설:
 ① ‘-샤’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오늘날의 ‘-시어’를 의미하는 옛말의 어미이다. 중세국어에서 주체 높임을 실현할 적에는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활용하다.
 ③ ‘하’는 높여야 하는 대상인 존칭 체언류에 붙어 오늘날의 ‘시어, 이시어’를 뜻하는 옛말의 호격 조사이다.
 ④ ‘-쇼셔’는 동사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청자를 높여주는 호쇼서할 자리에 쓰여,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의 ‘아르쇼셔’는 ‘아십시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쇼셔’는 오늘날의 ‘-십시오’에 해당한다.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물론 이 말은 스스로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허구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사실임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저러한 두 가지 체계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 그러므로 의식 세계에서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 ①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 ②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그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 ③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 ④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및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둘째 문단에 따르면,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의 체계’가 아니라 ‘믿음의 체계’이다.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식이 사실임이 검증되어야 한다.
★ 오답 해설:
 ① 둘째 문단에 따르면,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할 수 있는 체계는 ‘믿음의 체계’, 검증된 지식이 구성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의 체계’이다.
 ② 첫째 문단의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문장을 통해, 어떤 이가 어떤 지식을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곧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실로 수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 구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문장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 세계는 믿음과 사실의 두 가지 체계가 서로 뒤엉켜 있어서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